

독일 현대가구의 특성 분석 (1946~2005)

Characteristics of German Contemporary Furniture (1946~2005)

조속경

독일 현대가구의 특성 분석*¹

(1946~2005)

조 숙 경²

Characteristics of German Contemporary Furniture*¹

Sook-Kyung Cho²

ABSTRACT

German furniture design had been downward in trend after Bauhaus closed and through the War. Meanwhile Italy emerged as a center in furniture industry after the Second World War. After the Unification in 1989, however, German furniture still play predominant role in the world since they have their own unique quality and territory. This study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German furniture design by three different eras—Post-war recession (1946-1965), Arising times (1966-1989), Contemporary (1990-2005)—and categorized the major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as in the below.

First, function oriented design

Second, pursuing perfection of technology

Third, simplicity and purity of design

Keywords: *German, Furniture, Contemporary, function*

*1. 논문접수: 2006.2.17 본 논문은 2005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 서일대학 생활가구디자인과, Dep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Korea, 131-702

1. 서 론

1-1 연구목적

해마다 세계적으로 열리는 국제 가구박람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독일 쾰른(Köln)박람회, 둘째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페어, 세 번째는 미국의 가구박람회이다. 이 중에서 독일 쾰른의 박람회는 1924년에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구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실질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가구 트렌드를 읽어 낼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의 전쟁과 함께 바우하우스의 해체 이후 침체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독일의 가구디자인은 이탈리아의 가구산업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의 틈을 주었지만, 아직도 세계시장에서 무시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것은 독일의 가구가 이탈리아의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가구에 비해 경직되고 둔탁한 느낌을 주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완벽한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의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가구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분야보다는 형태교육과 외국제품을 모방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가구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외로의 수출은 물론 국제 전시회에 참가 할 수 없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력이라든가 경제적 조건 등 선진국으로써 갖추어야 할 여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탈리아식의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가구를 흉내 낸다 하더라도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창적인 가구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제도를 잘 활용해야한다. 새로운 기술만이 우리나라 가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므로 현재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가구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가구디자인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풍부한 기술력과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가구산업을 이끌어 가는 독일 현대가구를 조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구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지표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독일 현대가구형성의 시대적 배경을 제2차 세계대전과 통일독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기별 가구의 경향분석을 세계 제2차 대전이후부터 팝아트, 오피아트 등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포함한 침체기(1946~1965)와 그 이후부터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를 포함하는 도약기(1966~1989), 그리고 통일독일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현대(1990~2005)등의 3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이후인 1946년부터 2005년까지 약 50년간의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그 시대별 특징들을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1차적으로 독일의 현대가구디자인을 알 수 있는 전문서적을 포함한 관련 논문 및 서적을 중심으로 관련 사이트, 잡지 등을 통한 분석이다. 2차적으로는 매년 1월에 열리는 쾰른 국제가구박람회와 가구관련전시회를 참관하고 세계가구 흐름은 물론 현재 독일의 가구정보를 수집한다.

2. 시대적 배경

2-1 제2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의 패배는 1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힘겨웠던 독일의 경제를 더욱 더 빈곤의 구렁

텅이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군인들의 사망으로 도시를 재건할 인력도 국외로부터 원조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전쟁에서 피해가 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가져왔고, 이 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2차 대전이후 독일인의 근면함과 성실함은 '라인강의 기적' 을 낳는 등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에 있어서도 1950년에 기능주의에 입각한 울름(Ulm)디자인대학의 창설과 브라운사의 활약은 바우하우스의 폐쇄로 위기를 맞았던 독일디자인의 발전과 그 특성화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2-2 독일 통일

1989년 서독과 동독을 가로지르는 벽이 무너지면서 역사적인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독을 재건하기위해 서독 국민들의 세금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으며, 구동독인구의 이주와 일자리 문제로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구조 속에서 구동독지역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의 노력이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구동독에 위치한 대학들의 디자인계열 입시경쟁률은 저하되고 그곳에서 배출 된 디자이너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서독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예비디자이너들과 함께 독일디자이너의 실업률은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다. 독일의 통일은 바우하우스 이후 주춤했던 독일디자인을 다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3. 시기별 가구의 경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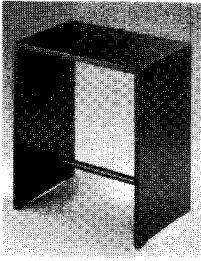
3-1 침체기(1946~196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로 변한 독일의 최대관심사는 1949년에 전시되고 진열되는 상품에서 보여지듯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과 일치한다. 건축과 더불어 인테리어 그리고 가구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리모델링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후 독일가구디자인의 특징을 자리잡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시기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울름대학의 창설멤버인 막스 빌(Max Bill)과 브라운사의 수석디자이너 디터 람스(Dieter Rams) 그리고 에곤 아이어만(Egon Eiermann), 허베르트 히르헤(Herbert Hirche)가 있다. 울름대학과 브라운사의 산학협동은 전후 독일가구디자인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특히 디자이너 개인의 독특한 개성표현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그들의 심리적기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팀워크를 중시했던 브라운사의 정책이 독일디자인의 저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팀워크는 대학교육의 기본이며, 현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디자인그룹에서도 그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막스 빌(1908, 스위스)은 바우하우스에서 수학하였으며, 화가, 건축가, 디자이너 그리고 이론가로 활동하면서 전후 독일디자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우하우스 모더니즘의 부활을 목표로 1950년에 설립되고, 1955년에 문을 여는 울름조형대학의 창설멤버로, 좋은 형태는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막스빌(fig.1)의 스텐은 판재로 이루어진 다리와 좌판, 두 다리를 이어주며 발받침 역할을 하는 가로대로 되어있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그의 디자인 철학을 잘 나타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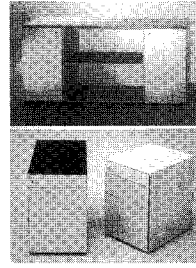
있으며, 또한 독일디자인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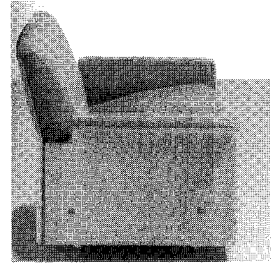
〈fig.1〉Stool, Max Bill, 1954

디터 램스(1932)는 1961년 브라운사(BraunAG)의 수석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기하학적이며, 단순한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그에게 있어서 가구는 놓여지는 장식품이나 예술품이 아니라 실제로 쓰여 지는 실용성과 기능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러한 철학은 막스 빌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는 저서에서 “굳 디자인”의 10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혁신적이어야 하며, 기능적이고, 미적으로 아름다우며, 제품의 용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며, 경박하지 않고 튼튼하며, 오래가고, 기술적인 모순이 없고, 환경 친화적이며, 가능한 작은 디자인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굳 디자인을 하기위하여 디자이너는 도구, 재료, 생산, 가공기술, 가격, 원가, 모델링, 사용자심리 등을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램스의 수납장은〈fig.2〉 막스 빌의 경향과 같이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직선적이며, 단순함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 탄력 있는 플라스틱과 오리털이 내장된 쿠션으로 만들어진 안락의자도〈fig.3〉 최소한의 재료와 구조로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의자를 가볍게 처리하였다.

건축을 전공한 아이어만(Eiermann, 1904-1970)은 1958년 브뤼셀국제박람회의 독일관을 맡아 설계하며, 여기에서 그의 단순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아이어만의 의자는〈fig.4〉 제2차 세계대전 말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이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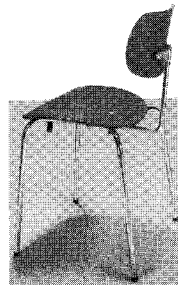


〈fig.2〉Dieter Rams,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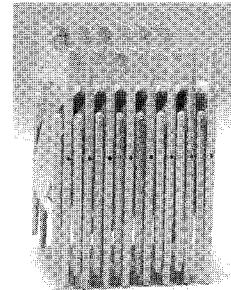


〈fig.3〉Sofa, Dieter Rams,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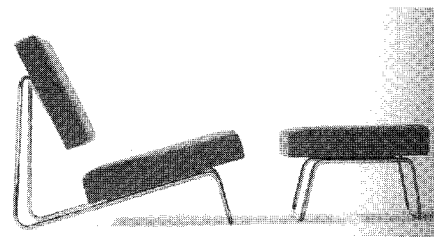
(Eames)부부가 가느다란 금속관다리와 3차원적으로 구부러진 합판의자를 개발한데서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면서도 견고하고 쌓아올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SE18〈fig.5〉에서 보듯이 너도밤나무를 이용하여 다리, 좌판 그리고 등받이가 일자로 접히는 의자처럼 가볍고, 적재와 운반이 용이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가구들을 제작하였다.



〈fig.4〉SE68, Eiermann, 1950



〈fig.5〉SE18, Eiermann, 1968



〈fig.6〉Chair+Stool, Herbert Hirche, 1953

허베르트 히르헤(Herbert Hirche)의 안락의자와 간의의자는(fig.6)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자신의 집을 위해 만들었다. 금속관으로 이루어진 앞다리는 쿠션과 천으로 마감된 좌판의 아래를 지나 뒷다리를 만들고, 다시 등받이로 올라가면서 나사로 조립된다. 오직 3개의 부분이 조립되고, 현대 가구의 경향처럼 낮은 높이는 미니멀리즘의 앞선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다.

침체기 독일 가구의 특징은 바우하우스와 독일공장연맹의 정신을 이어받아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이며, 기능에 치중한 가구들이 주류를 이루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도약기에 펼쳐질 유기적인 곡선을 사용한 제품들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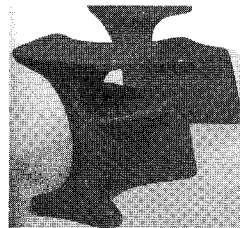
3-2 도약기(1966~1989)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1989년까지를 말하며, 건축과 디자인분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국제주의 양식과 모더니즘디자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루이기 콜라니(Luigi Colani), 리하르트 샤퍼(Richard Sapper), 슈테판 베베르카(Stefan Wewerka), 스틸레토 디자인(Stiletto Design), 펜타곤(Pentagon), 긴반데(GINBANDE), 악셀 쿠푸스(Axel Kufus) 그리고 회사로는 빌크한(Wilkhahn)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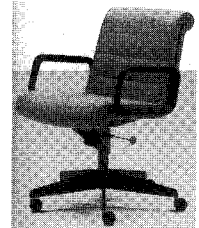
1960년대 중반 서독의 이론가들은 '사무실 환경'이라는 디자인개념을 발전시켰다.¹⁾ 이후에 시스템가구로 불리우는 이러한 가구들은 공간에 따라 다르게 조립되고, 높이나 위치 또는 개수의 변화를 가져와 사무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1966년부터 시작되는 도약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사무용가구들이 대거 등장하며, 현재는 2년마

다 오르가텍(ORGATEC)이라 불리우는 국제사무용가구박람회가 쾰른에서 열리고 있다.

루이기 콜라니(1928)는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한 초반에 비행기 및 자동차와 같은 탈것을 위주로 디자인하였으나, 점차 가구디자인이 중심이 되면서 그만의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독일디자인의 대부분이 기계작업이 용이한 직선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그의 가구들은 곡선적인 유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그의 가구들이 제작과정의 까다로움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공학적인 측면과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처럼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그가 주로 사용했던 재료가 플라스틱인 것처럼 어린이용 의자(fig.7)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아래의 좌판에 앉았을 때 등받이 역할을 하는 윗부분은 경우에 따라 테이블, 또 하나의 좌판 또는 놀이기구로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의자로 하체부분이 넓어 재료의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잃지 않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



<fig.7> Child Chair, Colani,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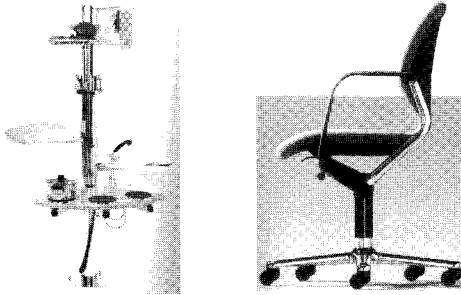
<fig.8> Office Chair, Sapper, 1979

샤퍼(1932)는 메르체데스 벤츠(Mercedes Benz)사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첫 경력을 쌓았으며, 여기서 배운 자동차 좌석과 같은 착석감을 후에 사무용의자에 응용하게 된다. 그의 디자인은 빈틈없이 정확하고, 기능적이며, 혁신적이고, 고도의 복합체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1) Peter Dormer, DESIGN SINCE 1945, Vision & Language, 1995, p162

의자는 <fig.8> 튼튼하고 탄력 있는 금속이 내장된 등받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팔걸이 그리고 고무 층의 나일론조직으로 된 좌판으로 이루어진 사무용의자이다.²⁾ 회전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이 의자는 무릎안쪽에 닿는 좌판의 앞부분과 머리가 닿는 등받이의 끝부분에는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주름진 모습이 편안하고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베베르카(Wewerka)의 1984년도 작품인 "부엌나무(Küchenbaum)" <fig.9>는 한 기둥에 수납과 조리 그리고 식탁의 기능까지 겸비한 것으로 높이가 조절되며, 360° 회전 가능하여 기술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9 >Kitchen, Wewerka, 1979

<fig.10>FS, Wilkhan,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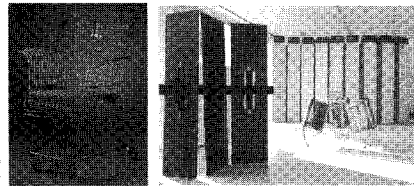
1900년대 설립된 빌크한(Wilkhahn)은 현재 6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 회사는 사무용가구 전문업체로 1980년대 초반에 디자이너 베르너 자우어(Werner Sauer)에 의한 FS시리즈 <fig.10>를 발표한다. 이것은 360° 회전가능하며 탄력 있는 좌판은 새로운 기술의 결정체로 당시 2만개 이상이 전 세계로 수출되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인간공학적 설계와 기술적인 완벽함이 돋보인다.

1980년대는 유럽전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독일에서는 스틸레토 디자인

자인(Stiletto Design), 펜타곤(Pentagon)등을 주요디자이너로 들 수 있다. 이시기에는 원목이 아닌 MDF(중밀도 섬유판)와 컬러코어라는 재료가 등장하여 가공이 손 쉬어지고 재료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스틸레토의 "Consumer's Rest"는 <fig.11> 수퍼마 에서 사용하는 바겐을 모티프로 하여 현대 물질주의를 풍자한 작품이다.

볼프강 라우버샤이머(Wolfgang Laubersheimer)에 의해 창설된 펜타곤 그룹은 1987년에 전시회를 개최한다. <fig.12>에서 보이는 것처럼 책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장은 나무로 만들어진 사과케잍의 위와 아래에 금속을 결합시켜 세 개의 케잍이 서로 지지하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재활용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전시장에 진열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품과도 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 빗장을 질러놓은 대문을 세 개 이어서 세워 놓은 듯한 칸막이는 쓰러질 듯 불안해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fig.11>Consumer's Rest, Stiletto,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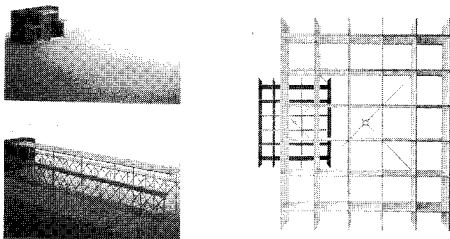
<fig.12>Pentagon, 1987

클라우스-아힘 하이네(Claus-Achim Heine)와 우베 피셔(Uwe Fischer)가 만나 결성한 긴반데는 80년대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들을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알리게 되는 <fig.13>은 최소 50cm에서 최대 5m까지 늘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로 기능주의중심의 독일 디자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초에 둘 다 대학교수로 초빙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2) Furniture-design Germany, 2005, Dumont, p138

있으며, 특히 피서는 슈트트가르트의 교수이면서도 많은 디자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fig.14〉는 악셀 쿠푸스(Axel Kufus, 1958)가 만든 책장시스템으로 측판을 연결하면서 선반을 받쳐주는 알루미늄 가로막대기가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에도 모어만(Moormann)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조립도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과, 뒤판 역할을 하면서 책장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X자형 와이어가 특징이다.



〈fig.13〉Table-bench,GINBANDE, 1987

〈fig.14〉Bookcase-system, Kufus,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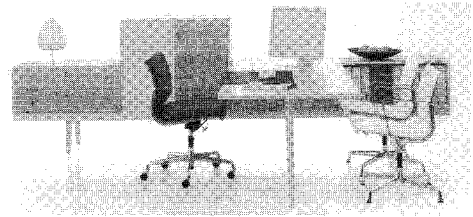
도약기 가구의 특징은 인간공학적 측면이 강조된 사무용가구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즉 침체기의 기능중심적 디자인을 계속 계승하면서 시스템가구라는 분야를 개척하여 선두주자로 나서는데 성공한 것이다.

3-3 현대(1990~2005)

제3기는 통일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포스트모더니즘시절이다. 이시기에 활동한 가구 디자이너는 콘스탄틴 그식(Konstantin Grcic), 회사로는 비트라(Vitra), 쿠쉬(Kusch+CO), 볼트하우프(Bulthaup), 로프 벤츠(Rolf Benz), 닐스홀거 모어만(Nils Holger Moormann)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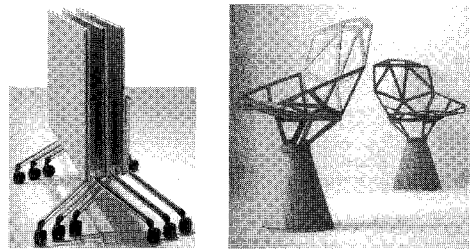
1934년에 설립된 비트라(Vitra)는 80년대 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자들의 모형을(스케일 1/600) 제작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으

며, 〈fig.15〉는 시스템가구디자인으로 알루미늄의 의자들은 미국의 이임즈(Eames)가 설계한 것이다.



〈fig.15〉System-furniture, Vitra, 2005

〈fig.16〉은 컴퓨터 작업에 용이한 테이블로 상판이 접히고 바퀴가 달려 혼자서도 운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1939년에 설립된 쿠쉬는 현재 500여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35만개의 의자와 테이블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회의장, 병원, 공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며, 시대별로 폴라니와 같은 많은 디자이너들과 제품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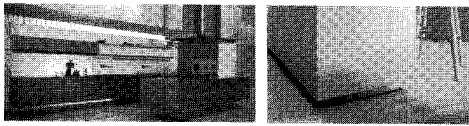
〈fig.16〉Table, Kusch, 2000

〈fig.17〉Chair, Konstantin Grcic, 2003

콘스탄틴 그식(1965)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가구디자이너 중의 한 사람이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왕립미술학교(Royal College of Art)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재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의 조교로 활동하였다. 영국의 실용주의와 독일의 신중함이 가미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그는 〈fig.17〉의 의자를 이탈리아의 가구회사 마지

스(Magis)를 위해 디자인하였다. 디자인으로 콘크리트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마치 전신주 또는 건축물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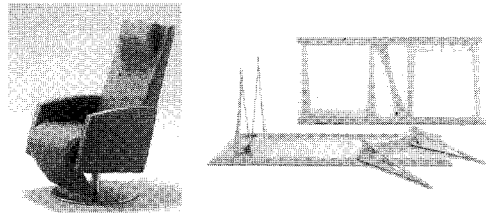
1949년에 설립된 볼트하우프는 재료는 가능한 한 얇고 견고성은 뛰어난 알루미늄과 스텐레스 스틸을 주로 사용하며, 부엌의 완벽한 기능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fig.18, 19>는 첫째, 바닥에 설치하거나 둘째,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남겨두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에 부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3가지 설치방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결코 바꿀 수 없었던 삶의 공간을 예술품처럼 또는 기능적으로 부엌을 자유자재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 회사 방침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fig.18, 19> Kitchensystem b3, 2004

<fig.20>은 1964년에 설립된 회사 로프 벤츠(Rolf Benz)에서 생산된 안락의자로 등받이가 뒤로 재껴지며, 밑으로 떨어진 좌판의 일부는 발걸이로 올라와 안락함을 더해준다. 360° 회전 가능하며 다리는 크롬도금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fig.21>은 6mm의 자작나무합판으로 만들어져 가볍고 탄력적이면서도 튼튼한 조립식테이블이다. 상판은 리놀륨(Linoleum)으로 처리되었고, 다리는 두 개의 합판이 나사로 조립된다. 1992년에 설립된 모어만은 쿠푸스, 그식 등 많은 디자이너들과 개발에 전념하면서 현대에 설립된 후발대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시기의 가구들은 휴머니즘에 입각한 기능중심적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fig.20> Chair 5800, 벤츠

<fig.21> Table, Moormann, 1996

데, 이것은 기술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가구산업은 하드웨어분야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3-4 독일 현대가구의 특징분석

<table1>은 3기로 나누어 분석한 위의 내용을 디자이너 및 기업 그리고 그들의 가구와 특징으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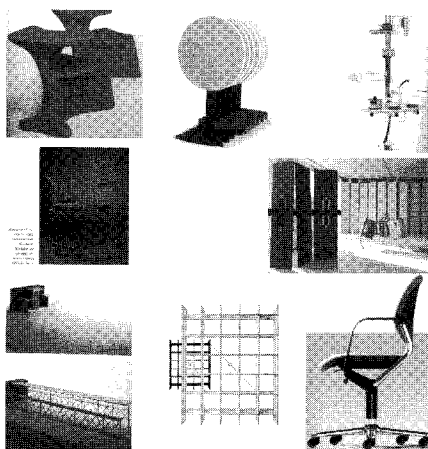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독일이 세계가구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국제가구박람회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매년 1월에 쾰른에서 개최되는 IMM(Internationale Möbel Messe)은 전 세계의 가구관련자들을 한 곳에 집합시키면서 앞으로의 가구경향 및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로 유명하다.



<fig.22> Furniture Exhibition, 2006, Koeln

위 그림은 2006년 쾰른가구박람회장 <fig.22>의 전경으로 왼쪽은 의자를 오른쪽은 소파 및 그 재료들을 자유스럽게 디스플레이 하였다. 올해의 경향은 색상 면에서 볼 때 이전과 동일한 화이트-블랙, 오렌지, 블루 등이 엿보이며,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단색 후레임에 꽃무늬 쿠션이다. 이러한 꽃무늬는 장식장과 같

<Table1>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Modern Furniture in German

시 기	디자이너 및 기업	가 구	특 정
<p>컴체기 (1946~1965)</p>	<p>막스 빌(Max Bill), 디터 램스 (Dieter Rams), 에곤 아이어만 (Egon Eiermann), 허버르트 히르헤 (Herbert Hirche)</p>		<p>-직선적, 기하학적, 단순한 형태 -기능중심적</p>
<p>도약기 (1966~1989)</p>	<p>루이지 콜라니 (Luigi Colani), 리하르트 샤퍼 (Richard Sapper), 슈테판 베베르카 (Stefan Wewerka), 스틸레토 디자인 (Stiletto Design), 펜타곤(Pentagon), 긴반데(GINBANDE), 악셀 쿠푸스 (Axel Kufus) 빌크한(Wilkhahn)</p>		<p>-시스템가구의 활성화 -기능중심의 단순한 디자인 (다기능) -인간공학적 설계</p>
<p>현 대 (1990~2005)</p>	<p>비트라(Vitra) 콘스탄틴 그릭 (Konstantin Grcic), 쿠시(Kusch+CO), 불탐(Bulthaup), 롤프 벤츠(Rolf Benz) 닐스 홀거 모어만 (Nils Holger Moormann)</p>		<p>-기능중심적 -인간공학적 설계 -완벽한 기술</p>

은 수납장의 문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재료는 목재를 중심으로 목질재료, 그리고 스틸, 플라스틱 등의 여러 재료가 혼재되어 나타나나 이전과 다른 점은 환경문제 대두로 인한 원목의 투박하고 자연스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소품들이 많아진 것이다.

4. 결 론

독일 베르크분트와 바우하우스가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독일디자인 특성을 만들었다면 전후의 특징을 형성하는 것은 울름디자인대학과 브라운사로 압축될 수 있다.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단순간결하면서도 대량생산이

용이한 기능중심적 디자인이 세계에서 독일가구가 주목받는 요소인 것이다.

독일현대가구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능중심적인 디자인

가구가 제일먼저 갖추어야 할 요소로 기능을 중시하는 정신은 바우하우스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기능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재료 및 기술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기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디자인

인간공학적으로 편안하며, 다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은 기술의 완벽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드웨어의 개발은 필수 요건이며, 이것으로 가구의 기능 또한 극대화 될 수 있다.

셋째, 단순함과 정제된 디자인

더 이상 단순해 질 수 없는 정제된 선과 형태는 “디자인을 가장 적게 한 것이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했던 디터 램스의 말과 일치한다. 군더더기 없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요소만 있는 간결함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1. 김경숙, 1991, 현대의자디자인 역사, 기문당
2. 김재은 편역, 1996, 디자인의 철학, 창지사
3. 박대순 옮김, 1996, 현대 디자인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4. 백 은, 1996, 마르셀 브로이어의 가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오영근, 1999, 세계가구의 역사, 기문당
6. 이건호 편저, 1998, 디자인통론, 유림문화사

7. 이연숙, 1988, 현대가구의 역사, 경춘사
8. 이지민, 2004, 의자디자인의 양식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vol.15/no.3.
9. 정시화, 1998, 산업디자인150년, 미진사
10. 조숙경, 2005, 바우하우스 가구의 특성연구, 한국가구학회지 vol.16/no.2.
11. 조정숙, 조정민 역/Lucie-Smith. Edward, 1992, 가구의 역사, 기문당
12. 피터 도머, 1995, DESIGN SINCE 1945, 시각과 언어
13. Edith Holm, 1978, stühle von der Antike bis zur Moderne, Deutschland München
14. Lydia L. Dewiel, , 1999, stühle & sessel, HEYNE, Deutschland München
15. Möbeldesign, 1993, Sembach, Leuthäuser, Gössel, Taschen, Deutschland Köln
16. Museum für Angewandte Kunst Köln, 1989, Möbel, Deutschland Köln
17. Design Report, 1994. 1, Deutschland
18. www.yahoo.com/ 인물사전
19. www.architonic.com
20. www.rolfbenz.de
21. www.wilkhahn.com
22. www.konstantin-Grcic.com
23. www.bulthaup.de
24. www.colani.de
25. www.kusch.de
26. www.vitra.com
27. www.moormann.de